

어머니 죽음과 아버지 냉대 속 '애달픈 삶'



의릉의 참도

의릉(懿陵)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20대 경종과 그의 계비 선의왕후 어씨(宣懿王后 魚氏 1705~1730)의 능이다. 사적 204호. 경종은 숙종의 제1자로 희빈 장씨의 소생이다. 숙종의 승하 후 경희궁에서 즉위하였으나 병약하여 재위 4년 만에 승하했다. 선의왕후는 함원부원군 어유구의 딸로 15세 때 세자빈이 되었다가 경종의 즉위와 더불어 왕비로 진봉되었는데, 26세로 소생 없이 승하했다. 일반적으로 생릉은 최우로 조성하나 이 능은 앞뒤로 능역을 조성했다. 왕릉과 왕비릉이 각각 단층의 상석을 모두 갖추고 뒤에 있는 왕릉에만 극장(굴은 담장)을 둘러 생릉임을 나타낸 배치이다. 이러한 등원상하봉 능설제도는 영릉(寧陵: 효종과 인선왕후 장씨의 능에서 처음 나타난 형식으로서 종수지리적으로 생기왕성한 정형에서 벗어날 것을 우려하여 앞뒤로 배치한 것이다. 석물은 병풍석이 없고 난간석·훈유석·장명등·망주석·문무인석과 말·양·호랑이가 있다. 능의 석물의 배치와 양식은 영릉(寧陵)숙종과 제1계비 인현왕후, 제2계비 인원왕후의 능과 같이 규모가 작고 간소하다. 이는 <속오례의>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능역은 37만8371㎡(11만4658평)이다.



의릉의 전경

생모 장희빈 죽음현장 목격한 충격 탓에 심신 병약 용상 오른지 4년만에 소생 없이 외로운 죽음 맞아



조선왕릉에서 불교를 읽다 ④

20대 경종과 계비 선의왕후 - 의릉

경종 (1688~1724) 37세

재위 1720.6(33세)~1724.8(37세) 4년 2개월

부모 복 없기로 따지면 조선 27대 역대 왕 중 20대 경종이 으뜸이 아닐까. 단종은 비록 어린 나이에 죽음을 당했으나 조부 세종, 아버지 문종의 사랑은 극진했다. 연산군은 불멸의 폭군으로 역사에 새겨졌으나 어머니에 대한 효성은 지극했다. 그것이 온당치 않게 발휘되어 폭군이 되었다. 경종은 열네 살 때, 아버지(숙종)에 의해 생모(장희빈)가 죽는 비극을 목격했다. 장씨는 사약을 받게 되자 마지막으로 자신이 낳은 아들을 보고 싶다고 숙종에게 애원했다. 왕은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한때 애뜻한 정분을 나눈 사이 인지라 인정에 이끌려 청을 들어주었다. 열네 살 세자를 사약을 받아 죽는 생모의 죽음 현장에 데려왔다. 이때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가 발생했다.

장씨는 아들을 보자 광기어린 눈빛으로 아들에게 달려들어 아들의 남신을 움켜쥐고 거칠게 잡아당겼다. 세자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생모가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세자의 충격은 엄청났다. 아들을 위로하고 힘을 실어 주어야 할 아버지 숙종은 오히려 아들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조공이라도 자신의 뜻에 어긋나거나 실수를 하면, 누가 낳은 새끼인데 그렇지 않겠느냐며 상난 목소리로 엄하게 꾸짖었다. 생모의 죽음과 아버지의 냉대 속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었다. 정신 이상 증세에다 육체는 시름시름 앓았다. 생식 능력을 상실한 채 왕위에 올라 시름시름 앓으면서 힘겹게 용상을 부여잡고 있다가 4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치적을 남길 틈도, 기력도 없는 4년이었다. 충신은 없고 노론, 소론의 피 터지는 권력다툼의 틈바구니에서 간신히 숨을 쉬다가 숨을 거뒀다. 그의 나이 37세였다.

숙종에게 희빈 장씨는 극악한 여인으로 입력되어 마침표가 찍혀 있다. 영리하고 애교 많던 곱고 짧은 여인의 추억은 삭제되고 권력을 탐해 무슨 짓든 할 수 있는 악녀로 규정했다. 후회하길 잘 하는 숙종이지만 장씨를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손뚱만금도 회한이 없다. 숙종은 세 명의 중전에게 아들 하나 얻지 못하고 장씨에게서 아들을 얻어 서둘러 원자로 정하고 세 살이 되자 세자로 책봉했지만 이제 입맛이 떨어졌다. 악독한 여인의 피가 흐르는 눈, 열네 살 때부터 서른이 넘을 때까지 끝끝내 병을 달고 사는 세자에게 믿음은 없어졌다. 대통을 잇게 하기에는 함라미달이란 생각뿐이었다. 성년이 한참 지났건만, 부인을 두 명 두었으나 자손을 생산할 걸새조차 보이지 않는다. 어머니와 아들을 동일시하는 착시현상마저 발생된다. 사람이 식으면 사람이 나무토막보다 못하다.

숙종은 소론을 배척하고 노론을 중용한 후, 1717년 세자가 병약하고 자식마저 낳지 못하니 노론의 영수 좌의정 이이명에게 숙빈 최씨의 소생인 연인군(영조)을 후사로 삼을 분유기를 잡으라고 은밀히 분부한다(정유독대). 명을 받은 좌의정은 조정의 분유기를 잡아나간다. 그해에 연인군으로 하여금 세자를 대신하여 세자 대리청정(세자를 대신하여 편전에 참석하여 정사를 배우는 것)을 명했다.

연인군의 대리청정이 결정되자 소론 측은 반발했다. 이때부터 세자를 지지하는 소론과 연인군을 지지하는 노론 간 당쟁이 격화된다. 이 논란은 숙종이 승하하자 일단 끝난다. 왕위를 이은 세자는 여전히 병약하고 무기력했다. 경종은 즉위 후 건강이 더욱 악화된다. 자식이 없다. 노론 측은 종묘사직을 위해 세자를 세워야한다고 주장한다. 아들도 없는데, 소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즉위 원년 8월(1721)에 연인

군을 세제에 책봉했다. 이어서 주장하기를 왕이 정사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하니 연인군으로 하여금 대리청정을 해야 한다고. 이는 물러나라는 말과 다름없다. 노론과 소론의 밭그릇 싸움에 힘없고 병든 경종만 하이어나에 뜬기는 사슴의 시신 꼴이었다. 유아기에 잠시 사랑을 받은 후 철이 들면서는 밝은 웃음 한 번 웃지 못한 경종. 1724년 8월, 재위 4년 2개월 만에 무거운 용포를 벗고 세상을 떠났다. 37세라는 나이도 허무할 뿐이다.

그의 생애만큼이나 그의 무덤도 애달프다. 경종이 묻힌 의릉은 1962년부터 1995년까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져야 했다. 재위 시절 힘없는 왕이라 죽은 육신마저 남에게 의탁했다. 33년 동안 의릉 능역과 그 주변은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 청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기관이 왕릉 일대를 접수해 무단 사용했다는 비난이 있다. 세월이 지났고 업무가 변했으니 달리 생각해본다.

다병무자(多病無子)했던 경종을 온전히 지켜줄 방패가 중앙정보부보다 더 확실한 데가 어디 있으랴. 국가 최고 정보기관, 보안과 경비가 뿔뿔같은 기관이 경종을 지켜주었다는 역설을 펼쳐본다. 담장 밖으로 그의 통곡이 새어나가지 않게 보안, 방음도 확실하게 했을 것이다. 유적의 보존에 대한 인식이 허약해 정보부는 홍살문과 정자각 사이에 연못을 만들었다. 그곳에서 권력자들이 뱃놀이를 했다는 소문도 있다. 지금은 완전히 복원되어 참도와 잔디밭이 가지런하다. 능의 왼편에 2층 콘크리트 건물에 있다. 고풍스러움과는 거리가 먼데 안내판이 서있다. '이 건물은 구 중앙정보부에서 사용하던 강당과 회의실 이었는데 1972년 7월 4일 이후라 중앙정보부장이 7

· 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곳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설명이 적혀있다. 건물 내부에는 관련 사진 몇 점이 전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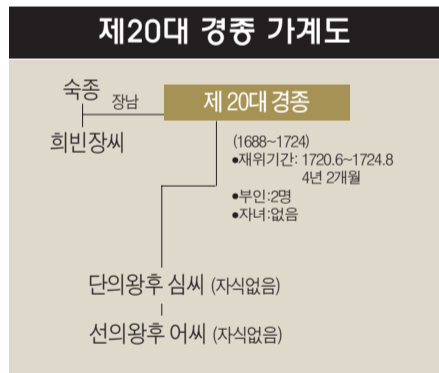
"어머니, 왜 질 날으셨나요?" 사랑에도 균형이 필요하다. 변함 없음을 필요하다. 자식은 도구가 아니다. 경종은 이제 갑옷 같은 안기부의 보호로부터 벗어났다. 계비와 아래위로 나란히 누운 그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

어머니의 은혜는 열 가지다. 첫째, 잉태하여 열 달 동안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보호해준 은혜. 둘째, 해산할 때 괴로움을 겪는 은혜. 셋째, 자식을 낳고 모든 근심을 잊는 은혜. 넷째, 쓴 음식은 당신이 삼키고 단 것을 먹여 준 은혜. 다섯째, 마른자리 골라 눕히고 당신은 젖은 자리에 눕는 은혜. 여섯째, 매맞추어 젖을 먹여 질러 준 은혜. 일곱째, 똥오줌 가려 더러울 것을 빨아준 은혜. 여덟째, 자식이 먼 길 떠나면 염려하는 은혜. 아홉째, 자식을 위해서라면 나쁜 일도 마다 않은 은혜. 열째,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은혜.

-<부모은중경> 중에서-

죽음은 법인이자 화해와 용서다. 죽음은 후세에 대한 교훈이다. 원한을 대물림하는 죽음은 좋은 죽음이 아니다. 희빈 장씨도, 경종도 죽었다. 원한이 세월 속에 소멸되었길 기원한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 그러나 역사를 가정해보는 것은 후손의 자유다. 경종이 건강한 몸으로 왕위에 있었다면? 어머니를 비극적 죽음으로 몰고 간 이들을 그냥 두었을까. 제2의 연산군이 되고도 남지 않을까.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국내 최대 일만관 범종 탄생

- 화천 세계 평화의 종(10,000관) -

◆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곡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sungjongs@hotmail.com
 ◆ 대표 : 범산 원광식(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대한민국 명장)

광주 민주의 종 8150관(현존 국내 최대)

聖鐘社 SUNG JONG SA